

중국 섬유 산업 -금년 수출 목표 550억불

무질서한 증설 엄격 규제

중국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는 대만의 건너편에 있는 복건성(福建省)의 아모이(廈門)에서 전국방직산업공작회(全國紡織産業工作會議)를 개최하고, 경제운영국(經濟運營局)으로부터 2001년의 전국 섬유공업 생산액은 전년(2000년)보다도 12.5% 증가한 8,895억위안(元 : 약 125조 4,195억 원)이었으며, 섬유품 수출은 세계적인 불황 등의 역풍(逆風)속에서도 정부나 기업이 합심 노력한 결과 과거 최고의 실적을 올렸음을 강조하였다.

2001년도의 섬유산업 손익합계는 1 11월에 전년보다 11.6% 감소한 220억 6천만위안이었다. 이익합계는 전년보다도 1.1% 줄은 309억 7천만위안이고, 손실합계는 전년보다도 40.1%가 증가한 89억 1천만위안으로서 연간 손익합계는 240억위안을 웃돌 전망이다.

이익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원면에서 중국산과 국제시세와의 가격차, 합섬의 시세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폴리에스테르가격은 증산으로 인하여 공급이 과잉상태가 되어, 단섬유는 30% 이상 떨어졌고, 장섬유도 약 40% 떨어졌다고 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원면은 국제시세와 비교하면 연간 평균으로 1톤당 1,300위안 비싸고 섬유품의 수출시장에서는, 원료값이 비싸지면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값도 비싸져야 하는데, 오히려 값이 싸므로 생산자가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원료고·제품저(原料高·製品低) 현상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중국방직공업협회에 의하면 전년 1월 11월의 국유방직기업의 판매고는 전체 판매고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은 3.5%에 불과하여 국유방직기

업의 수익이 극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유합섬산업의 이익도 3천 6백만위안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발판으로 하고, WTO(世界貿易機構) 가맹으로 생긴 새로운 조건을 잘 살려,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 WTO 가맹으로 생긴 찬스(chance)는 숨어 있으니 이를 발굴하도록 도전하여 불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2년으로서 제10차 5개년 계획의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 섬유산업은 금년도 사업목표로 방적사 생산은 전년도 실적 670만톤에서 4.5% 늘어난 700만톤으로, 화합섬 생산은 전년도 실적 828만톤에서 6.3% 증가한 550억 불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매크로·콘트롤(macro·control 巨視的管理)과 자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각 기업과의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방직공업협회와 같은 업계 단체가 맡은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관심사가 되어 있던 아크릴 등의 수입허가제도(Import License 制度)는 금년 2월 1일부터 정부에 의한 수입수량 한도의 할당이 없어지고, 수입권이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사실상 수입이 자유화된다.

그런데 면화, 양모, 울·톱(wool·top)은 수입량의 한도를 종전대로 두고, 수입한도 내로 수입하면 통상(通常)보다도 1% 관세가 낮으며, 수입한도를 넘게 수입할 때에는 통상세율로 수입할 수 있다. 2002년의 수입량 한도는 면화 81만 8천5백톤, 양모 26만 4천5백톤, 울·톱 7만 2천5백톤으로 발표되었다.

정부에 의한 매크로·콘트롤의 가장 큰 과제는 방적이나 합섬이 허가 없이 증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업무이다. 합성섬유의 경우 불경기의 원인은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내의 무질서한 증설 때문이라

고 판단하고 있어, 기업이나 업계의 자주적인 생산조정, 동업자간의 과당 경쟁 방지나 업계를 개편하여 대형 메이커로 집중하도록 업계단체가 각 기업을 유도하는 일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수출용 원부자재와 같은 간접적인 수출도 포함하여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미국·유럽 시장의 금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새로운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부터 섬유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폴리에스테르 섬유 및 칩(chip), 아크릴 섬유의 수입허가제도에 따른 수입 수량 제한이 없어짐을 소개하고 “두 개의 자원(수입과 국내생산)을 잘 활용하여 생산원가를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호소하였다.